

구례북초 수영부, 장애 딛고 은빛 레이스

김수현, 전국장애 학생체육대회 은메달 3관왕

구례초등학교는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김천 실내수영장에서 개최된 제16회 전국장애 학생체육대회 수영 3개 종목에 참가했다. 이번 전국장애 학생체육대회에는 학교 체육 활동 증진 및 장애 학생의 기량을 펼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대회로 장애인체육회와 전남도교육청이 함께 추진해 코로나 유행 이후 2년만에 정상 개최됐다. 이번 대회에서 구례초등학교

김수현(6학년)학생은 자유형 50m, 자유형 100m, 배영 50m 3개 종목에 출전해 3개 종목 모두 은메달을 수상하는 눈부신 성과를 거뒀다. 대회에 출전한 김수현학생은 "작년보다 더 좋은 기록이어서 기쁘다"고 말했다. 출전 선수의 학부모는 "수상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기록보다 대회 참가를 통해 자신감과 성취감을 얻고, 아이가 점점 성장하게 되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고교수 교장은 "코로나 상황 속에서 훈련에 제약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전국대회에 참가하여 학교의 위상을 높이고 스스로를 키워가는 학생 선수에게 많은 칭찬과 격려를 보낸다"며 "대회 준비를 위해 고생하고 뒷바라지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함을 전한다"고 밝혔다. 향후 구례초등학교에서는 특수학급 스포츠클럽(운동부)을 통한 다양한 체육활동의 참여와 협업을 통해 장애학생들이 더 건강하고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체육 역량 향상에 노력해 나갈 것이다.

구하고 전국대회에 참가하여 학교의 위상을 높이고 스스로를 키워가는 학생 선수에게 많은 칭찬과 격려를 보낸다"며 "대회 준비를 위해 고생하고 뒷바라지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함을 전한다"고 밝혔다. 향후 구례초등학교에서는 특수학급 스포츠클럽(운동부)을 통한 다양한 체육활동의 참여와 협업을 통해 장애학생들이 더 건강하고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체육 역량 향상에 노력해 나갈 것이다.

/구례=오광범 기자

포토뉴스



광산구, 우크라이나 평화 기원 음악회 성공 전달 광산구는 5·18민주화운동 42주년을 맞아 개최한 '오월국제교류음악회'를 통해 모은 우크라이나 평화 기원 성금 전액 161만 8000 원을 25일 고려인마을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동기 기자



광주동부교육지원청, 굿네이버스와 업무협약 체결 동부교육지원청이 지난 24일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 광주전남지역본부와 함께 '지역 내 아동·청소년의 사회복지 및 정신건강 통합 서비스 지원망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도기 기자



광양제철소 프렌즈봉사단, 다문화가정 'We Are The Family' 행사 광양제철소 프렌즈봉사단은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 21일 광양지역의 모든 가족들이 한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뜻을 담은 'We Are The Family' 행사를 기획하고, 광양시 다문화가정 25가족을 초청했다. /광양=조순익 기자

광주교육청 '수업성찰과 소통 위한 수업공개 챌린지' 시작

자발적 수업공개 · 성찰 나눔 통한 교사 성장 지원 도모



광주시교육청이 '2022 수업성찰과 소통을 위한 수업공개 챌린지'를 25일과 26일 태봉초등학교 교사 김순희 선생님을 시작으로 12월까지 온·오프라인 진행한다. 25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수업공개 챌린지는 자발적 수업공개와 성찰 나눔을 통해 격려하고 지지하는 수업공개 문화 확산과 교사의 성장 지원이 주요 목적이다. 교사들은 수업공개 챌린지를 통해 본인의 수업철학과 평소 가지고 있던 수업고민을 공식적으로 드러내는 시간을 갖는다. 비슷한 수업고민을 가지고 있는 교내의 선생님들과 자신의 수업을 공유하고 환류해 참여자 모두의 성장을 도모할 전망이다. 한편 올해 첫 수업공개 챌린지인

태봉초 김순희 교사는 학생 배움중심수업을 위해 30여 년의 교직 생활 동안 평생 연구하고 실천한 참 교사이다. 특히 올해에는 '학습이란 나에게 의미가 있어야 하고 그래야 궁극적으로 실생활에서 영어 사용을 유도할 수 있다고 믿는다'는 수업철학으로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수준차가 심한 우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하면 모두가 즐겁게 참여하는 영어수업을 설계하고 실천할 수 있을까'에 대한 도전과제를 가지고 이번 수업을 공개했다. 장휘국 교육감은 "자신의 수업을 공개하는 것은 교사로서 대단히 어려운 일이지만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며 어렵게 먼저 용기를 내 주신 김순희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며 "수업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선생님들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도기 기자

태봉초 김순희 교사는 학생 배움중심수업을 위해 30여 년의 교직 생활 동안 평생 연구하고 실천한 참 교사이다.

특히 올해에는 '학습이란 나에게 의미가 있어야 하고 그래야 궁극적으로 실생활에서 영어 사용을 유도할 수 있다고 믿는다'는 수업철학으로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수준차가 심한 우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하면 모두가 즐겁게 참여하는 영어수업을 설계하고 실천할 수 있을까'에 대한 도전과제를 가지고 이번 수업을 공개했다.

장휘국 교육감은 "자신의 수업을 공개하는 것은 교사로서 대단히 어려운 일이지만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며 어렵게 먼저 용기를 내 주신 김순희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며 "수업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선생님들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도기 기자

순천대 지능기술연구소, 섬지역 드론 운용 통합체계 개발 나서



순천대학교 지능기술연구소가 과학기술을 활용해 지역 주민·지자체와 과학기술 연구자가 함께 소통하며 지역 현안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과학기술 활용 주민공감 현장문제 해결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해당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가 공동 주관하는 사업으로 순천대학교 지능기술연구소 연구팀은 대한항공, 전라남도 테크노파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섬지역 상시순찰 및 신속 대응이 가능한 치안드론 운용 통합체계 개발' 기획과제를 수행할 예정이다.

순천대학교 지능기술연구소는 리빙랩(생활실험실, 시민생활과 연관성이 있는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공동체) 활동을 통해 주민 수요를 반영한 기술개발 범위를 확정하였다. 본 과제 취지에 맞게 지역 주민, 지자체, 경찰, 기업, 대학교, 연구기관 등 관계자로부터 구성된 '스스로해결단'을 구성해 전남 섬 지역 실정 및 스스로해결단 요구사항에 맞는 순찰용 드론 활용 기술개발 및 확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순천대 지능기술연구소 컨소시엄은 2023년 7월까지 기술개발을 진행하고, 2023년 10월까지 고흥군에 위치한 득량도, 상·화라도 3개 섬을 대상으로 입도객 사고예방 순찰, 섬 주변 어망 도난·훼손 방지 등 현장 실증을 수행할 계획이다.

순천대 지능기술연구소는 리빙랩(생활실험실, 시민생활과 연관성이 있는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공동체) 활동을 통해 주민 수요를 반영한 기술개발 범위를 확정하였다. 본 과제 취지에 맞게 지역 주민, 지자체, 경찰, 기업, 대학교, 연구기관 등 관계자로부터 구성된 '스스로해결단'을 구성해 전남 섬 지역 실정 및 스스로해결단 요구사항에 맞는 순찰용 드론 활용 기술개발 및 확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순천대 지능기술연구소 컨소시엄은 2023년 7월까지 기술개발을 진행하고, 2023년 10월까지 고흥군에 위치한 득량도, 상·화라도 3개 섬을 대상으로 입도객 사고예방 순찰, 섬 주변 어망 도난·훼손 방지 등 현장 실증을 수행할 계획이다.

완도 노화여성단체협의회 초대 회장에 노경자씨 취임

"사랑의 봉사 · 감사의 봉사 · 축복의 봉사 실천" 다짐



완도군 노화여성단체협의회는 지난 25일 오전 11시 노화 건강데마촌 2층 회의실에서 초대 취임식을 개최했다. /완도=이두식 기자

노경자 회장은 취임사에서 "지난해 우리읍의 여러봉사 활동에 함께 하고 도와준 회원여러분께 감사하다"며 "여러분과 함께 어우러져가는 삶을 통해 사랑의 봉사 · 감사의 봉사 · 축복의 봉사를 실천하겠다"며 회원들의 권익보호는 물론 저소득 소외계층과 어려운 이웃을 봉사의 정신으로 받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에는 유재갑(해남·완도·강진)국회의원, 박용남(신우철군수후보 부인)여사, 임희덕 완도군여성단체협의회장 등 관내 기관사회단체장, 지역유지, 주민 100여 명이 참석했다. /완도=이두식 기자

한국색소폰협회 해남군지부 창립공연

오는 28일 오후 7시 해남군민광장 야외 무대



최근 사단법인 한국색소폰협회 해남군지부가 출범했다고 25일 밝혔다. 백선오 지부장을 비롯한 김경식 부회장, 박경모 사무국장 등 21명의 회원들로 구성된 한국색소폰협회 해남군지부는 오는 28일 오후 7시 해남군민광장 야외 무대에서 한

국예총(지부장 김원규)의 후원으로 회원들의 창립기념 공연무대를 마련한다. 이번 공연은 색소폰합주, 독주, 앙상블합주 등 회원들의 색소폰 연주 실력을 선보인다. 이와는 별도로 한국색소폰협회 해남군지부의 창립을 축하하는 특별 출연 공연으로 난타 공연, 레인보우 팀 공연, 밴드공연, 유타 공연, 지역 가수 공연 등이 펼쳐진다.

한국색소폰협회 해남군지부 백선오 지부장은 이번 창립기념공연과 관련해 "색소폰을 사랑하고 색소폰을 즐겨 연주하는 순수한 예술인들이 한마음으로 이번 출범에 참여하게 됐다"며 "한국색소폰협회 해남군지부가 색소폰 연주로 지역민들의 마음에 희망을 불어넣는 단계로 발전해 가도록 회원 모두가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해남=김동주 기자

광주북초 "우리 학교에는 논이 있어요"

'꼬마농부 프로젝트' 생태교육 모내기 실시



광주북초등학교가 25일 교육공동체와 함께 참여한 가운데 '고고논'에서 모내기를 실시했다. 25일 광주북초에 따르면 농사는 광주북초의 텃밭가꾸기와 더불어 실시하는 '꼬마농부프로젝트'의 하나로 지난 2019학년부터 시작했다. 작물을 키우고 수확하며 자연의 순환을 배우고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이해하고자 하는 광주북초등학교의 특색교육이다. /김도기 기자

작년까지는 학교 인근의 논을 임대해 이용했으나 올해는 학교 안 유휴공간에 직접 논을 만들어 학생들이 더 가까이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했다. 학생들은 직접 벼씨를 고르고 못자리를 내어 정성스럽게 모를 키웠다. 학생들, 학부모, 동창회, 지역 농민, 건국동 직원들이 모두 참여해 100여 평의 논에 전통 모내기 방식으로 모내기를 진행했다. /김도기 기자

광양시 봉강면, 소확밀 밑반찬 나눔

봉강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독거어르신 가구에 밑반찬 지원



광양시 봉강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오는 12월까지 식사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독거어르신 12가구에 밑반찬을 지원하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끼니(Meal)' 소확밀 밑반찬 지원사업의 첫 전달식을 지난 24일 가졌다. 소확밀 밑반찬 지원사업은 봉강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봉강면지역사회복지팀 직원들이 월 2회 밑반찬 배달을 통해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하는 민·관 협력사업으로 광양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모사업 지원금과 봉강면협의체 지정기탁금으로 진행되고 있다. 밑반찬 지원대상자는 "매번 반찬을 준비하기 어려워 식사를 거르는 경우가 많았는데 다양한 반찬을 직접 배달까지 해주다니 고맙다"고 밝혔다. 조규홍 봉강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은 "독거어르신들의 지친 마음에 위안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주민 모두가 행복한 봉강면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광양=조순익 기자

지원금과 봉강면협의체 지정기탁금으로 진행되고 있다. 밑반찬 지원대상자는 "매번 반찬을 준비하기 어려워 식사를 거르는 경우가 많았는데 다양한 반찬을 직접 배달까지 해주다니 고맙다"고 밝혔다. 조규홍 봉강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은 "독거어르신들의 지친 마음에 위안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주민 모두가 행복한 봉강면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광양=조순익 기자